민자유치로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박차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신임 이사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사업의성패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국내외 민간 자본을유치하느냐에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차질없이자금조달될 수있도록 중장기 재원 조달로드맵을조속히마련하여실행해나갈 것입니다."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임 이사장의 취임 일성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는선도프로젝트에만도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7대 선도 프로젝트(첨단과학기지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쇼핑 아울렛, 중문관광단지, 공항자유무역지대의조성과개발)는공공부문에서 7,900억원 민간 부문에서 2조 4,000억원을투자유치하도록되어있다.

진 이사장은 재원 조달 로드맵에 의거하여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내국인 면세점 수익확대를위한제도개선등공공부문에서의재원조달에힘쓰는한편, 투자자들의관심을유도할수있는 수익성모델을제시하여민자유치에주력할계획이다.

사실 제주도를' 비즈니스와 첨단 지식산업을 갖춘 관광·휴양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로 만들자는 구상은 197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2002년제주개발센터를설립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제주개발센터는7개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 △첨단과학기지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쇼핑 아울렛 등 5개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첨단과기단지, 휴양단지, 신화·역사공원, 명품아울렛시설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사업은 관계 기관과의 항만기본계획변경등의절차를거치고있어 예정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는그중요성에도 불구하고천혜의자연환경훼손을우려하는 환경단체와지역단체의 반발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진 이사장은 "개발과 환경보전은양립될수있다"고단언했다.

진 이사장은 "환경단체나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정부기관양쪽모두국민의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 일하는 만큼 상호 신뢰를바탕으로서로 공감하는방안을도출해낼수있을것"이라며," 제주도는환경 자체가가장큰경쟁력이기때문에환경을 훼손하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말했다.

진 이사장은 제주 개발 사업의 세 가지 키워드로' 자금 '과' 환경 '그리고' 지역주민과의공감대 를꼽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중요한것은도민들과공감대를형성해도민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도민들의 적극적인지원과협조 속에서추진해나가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사랑받는관광과휴양의도시가된다고해도도민들이소외받고개발이익이도민들에게돌아가지않는다면무의미하다는것이다.

진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제주도가 수년 안에 동북아시아의 관광, 휴양, 비즈니스의 중심지가될것"을확신했다.

한양대학교졸업직후인1978년기술고시에합격, 신청사 기획단장,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등 주로 도시계획및건설분야요직을두루거친진 이사장은 특히 1998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난지도 110만 평을 상암 DMC와 월드컵 공원 등으로 성공적으로 개발한 일을 가장 기억에남는공사로꼽았다. 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